

# 영어 복합명사의 강세형

이영길(전남대)

## <차례>

1. 서론
2. 복합명사의 강세형
3. 복합어와 탈액센트
4. 강세의 가변성
5. 결론

## <Abstract>

### Stress Patterns of Compound Nouns in English

Lee Yeong-Kil

Stress assignment has been much discussed in the literature on English compound nouns. The general view of the stress pattern of English compound nouns is that a main stress falls on the first element and a secondary stress on the second element; however, a stress pattern is often employed that provides counterevidence to the traditional pedagogical approach. A new idea is suggested by Ladd(1984) that "compound stress represents the deaccenting of the head of the compound."

Recent studies show that initial stressing does not indicate compounds and syntactic phrases are not always characterized by final stressing. In his pilot test Pennanen comments on the frequent variation of stress patterns on individual items, on the basis of which Bauer confirms Pennanen's results with different informant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justify Bauer's analysis with the same data as Bauer's and different subjects. It turns out that the competences of native-speaker informants do not provide clear-cut answers. Some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ssigning appropriate stress to compound nouns.

## 1. 서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로 구성된 복합어(compound)는 복합어 특유의 또는 다른 구조들과 공유될 수 있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 영어 어휘 형성의 약 40% 비율을 차지하고있는 복합어 형성은 구조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의미적인 면에서도 매우 흥미 있는 과정이다. 특히 복합어의 의미는 흔히 예측하기 어려운 예들이 많지만 어느 정도 합성적 성질을 갖는다.

복합어에 관해 흔히 논의되는 음운규칙 중의 하나는 강세할당이다. 전통적으로 복합어는 그 구성 요소 중 한 단어, 즉 앞 요소에 상대적 강세를 부여하는 규칙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복합어 big-foot와 명사구인 big f<sup>oo</sup>t은 big의 강세에 의해 복합어와 통사 구로 구별된다. 그러나 모든 복합어가 반드시 첫 번째 요소에 강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knée-déep은 균강세(level stress)이지만 apprentice-wélder는 후강세(end-stress)이다.<sup>1)</sup>

Adams(1973)는 복합어를 master key와 같은 머리어 명사(head noun)+명사인 복합어, call boy, drinking water, reception committee 와 같은 명사화 복합어, 그리고 black bird, mocking bird와 같은 형용사 또는 분사+명사 복합어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복합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복합어 분석의 어려움을 말해준다(Adams: 58).

본 논문에서는 Pennanen의 실험 자료를 근거로 한 Bauer의 분석에서 사용한 10개의 복합명사를 사용한 실험을 통하여 Bauer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영어 사용 원어민들이 강세 할당에 있어서 어떠한 인식적 차이를 나타내며 그 분포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복합명사 강세형

전통적으로 강세 패턴을 통사적 구조의 직접적 결과로 보는 관점에서는 표면구조에서의 복합어와 구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고(Trager & Smith 1951: 67-77; Quirk et al., 1972:915, 1019) 구 강세와 복합어 강세로 구분한다. 그러나 똑같은 명사+명사인 stéel warehouse 'warehouse for storing steel'와 steel wárehouse 'warehouse made of steel' 등과 같이 애매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통사 구조에 달려있는 것으로 여긴다.<sup>2)</sup>

1) Adams(1973)는 adjective compound라 부르고, Marchand(1969)는 compound adjective라 부른다.

2) "... the assumption continues to be held that ultimately the whole phenomenon will be shown to depend on syntax at one level or another."(Ladd 1984:253).

많은 복합어들은 Chomsky and Hall(1968, 이하 C & H)의 복합어 강세 규칙(Compound Stress Rule)과 Liberman and Prince(1977)의 어휘범주 돋들림 규칙(Lexical Category Prominence Rule)과 같은 기술적(descriptive) 진술에 의해 정확히 생성된다. 특히 이른바 변형순환 내의 규칙들에 의해 강세들이 할당되는 C & H의 복합어 규칙은 형태소에서부터 음운 구에 이르기까지 문법단위가 커질수록 반복 적용된다. 그러나 적어도 일반 미어(General American, GA)와 영국 표준 발음(Received Pronunciation, RP)과 같은 커다란 지역적 차이에 따라 강세형의 차이가 있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wine cooler-wine cÓoler, bláck belt-black bélt 등이 그러하며, GA 자체 내에서도 rúubber band 또는 rubber bánd, gréen beans 와 gréen béans의 두 가지 강세형이 가능하다.

복합어의 강세 분포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그 결과에 대한 견해는 많이 다르다. 한 예로 Zandvoort는 균강세의 경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화자나 청자의 의도 또는 언어학적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sup>3)</sup> Wells(1990)의 Pronunciation Dictionary에서는 stone wall은 stÓne wall과 stÓne wáll의 두 가지 강세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Longman Advanced American Dictionary(2000)는 stÓne wall만 표기하고 있다. Kenyon and Knott(1953)의 A Pronouncing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에는 stÓnewáll(adj.), stÓnewáll(v.), stÓne wáll의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Jones(1955)의 An English Pronouncing Dictionary에서는 stÓne wáll과 같은 level stress로 표시한다.

강세 규칙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복합어는 구조적 또는 해석적 특성들을 갖는다. 따라서 영어 복합어의 강세형은 많은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Fabb(1998)에 의하면 첫째로 영어 복합어의 강세형은 복합어 내의 위계적 구조가 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네 개의 단어로 된 복합명사인 student essay record book에서 record가 가장 강한 강세를 받는 것은 record book이 하위성분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American history teacher association의 경우 위계적 구조에 따라 강세형이 달라진다. 둘째로 복합어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C & H의 복합어 규칙과 같은 강세할당 규칙의 체계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영어 복합어가 모두 앞 요소에 강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강세규칙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복합어의 구조적 특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복합어의 여러 변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Adams(1976)와 복합어를 여러 유형별로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Marchand(1969)도 강세 할당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iron curtain은 Adams의 경우 후강세로 나타내지만 Marchand는 균강세를 부여한다. 또한 driver's seat의 경우에도 Adams는 앞 요소에 강세를 부여하는 반면에 Marchand는 두 번째 요소에 강세를 할당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3) Zandvoort (1975:280). 또한 lady doctor, deputy governor, queen mother, fellow-man, poet-artist 등은 비록 균강세이지만 복합어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cane sugar의 경우 Longman Advanced American Dictionary에서는 후강세이고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에서는 전강세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Adams에서는 후강세로 분류된다. 이러한 현상은 곧 복합명사의 강세에 어떤 일률적인 고정강세형을 부여하기가 매우 어렵고 강세형 할당에 수반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C & H의 방법이라면 hair shirt, paper handkerchief 등과 같은 복합어는 첫 번째 요소가 형용사로 간주되겠지만(Bauer 1983), 이러한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Sampson(1980)은 명사(N<sub>1</sub>)+명사(N<sub>2</sub>) 복합어의 경우 N<sub>1</sub>에 강세가 오는 일반형에 대한 예외를 두 유형으로 구분 설명한다. 하나는 C-H의 복합어 규칙에 대한 예외들로서 plàstic búcket, rùbber bánd, háir shìrt, hándkerchief 등을 일반 예외(*general counterexamples*)라 부르고, wéather fòrecast, séarch àrea, fliýing contròls와 같은 강세형 대신에 wèather fòrecast, sèarch área와 같이 강세가 N<sub>2</sub>로 이동하는 예 등을 새로운 현상(*new development*)이라 부른다.<sup>4)</sup> 전자의 경우는 특히 RP에서 볼 수 있는데 N<sub>1</sub>은 N<sub>2</sub>의 성분 재료이다. 강세형은 가끔 두 요소 사이의 의미적 관계와 상관성이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wine stain, oil slick 등이 N<sub>1</sub>에 강세가 있는 이유는 N<sub>1</sub>이 결과적으로 생긴 일종의 가공물(*artefact*)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weather forecast, search area, flying control 등은 첫 번째 요소에 강세가 오는 정상적 강세 패턴에서 벗어나 두 번째 요소에 강세를 갖는 새로운 경향이 있으며, coal índustry, Labour Párty, Trade Depártnent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복합어의 두 번째 요소가 어떤 조직이나 기구 등을 나타낼 때 그러한 두 번째 요소가 강세를 갖는 현상도 새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강세 이동은 어휘적, 통사적, 사회언어학적 제약 중 어휘적 제약에 의해 생긴 결과라고 한다. Lees(1968)는 일찍이 àpple píe와 ápple càke, Mádison Ávenue와 Mádison Strèet의 강세 차이는 통사적 기능이나 또는 어떤 예외적 지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표현의 머리어 명사(*head noun*)가 갖는 어휘적 조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3. 복합어와 탈액센트

복합어 분석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Ladd(1984)에서는 복합어 강세를 복합어 머리어(Head)의 탈액센트 현상(*deaccenting*)으로 간주한다. 다음과 같은 Ladd의 예 (1)은 정상적인 무표적(*unmarked*) 강세이다.

4) 이러한 현상은 atom bomb, bank balance, dust bowl 등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강세형 / ' /이 / ' /으로 바뀌는 예는 없다고 한다(Sampson 1980: 267).

(1)



They live in a green house

위의 역현상은 다음과 같이 유표적(marked) 대조 관계가 된다.

(2)



They live in a green house, not a grey one.

그러나 다음 (3)은 복합어 강세가 유표적이면서 비정상적으로 복합어 내에서 탈액센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I grew them in a greenhouse. ('marked' - deaccented)

Ladd에 의하면 이러한 탈액센트가 문장의 리듬구조의 상위 계층에서 전달되는 초점 정보(focus information)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복합어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즉 탈액센트 성분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위해 특정 화맥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sup>5)</sup>

전통적인 복합어 강세 이론에서 예외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 단지 통사와 운율 사이의 상관성만을 관찰하였을 뿐이며 규칙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것이 Ladd의 주장이다. Ladd는 그러한 상관성에 대한 이유 내지 강세형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와 복합 관계 자체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 사이의 일치성에 대한 실제 이유를 제안한다. 따라서 복합어는 머리어가 가리키는 범주와는 구별이 되는 다른 범주를 가리킨다. 특히 머리어의 탈액센트는 복합어의 범주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른바 머리어와 속성 사이의 '적절한 분류적 관계'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green hóuse에서는 이러한 화맥에서 house의 해석에 관해 어떤 특별한 것이 알려진바 없이 house가 더 자세히 기술되지만 새로이 하위범주화

5) Ladd는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B의 강세형은 대조가 아닌 탈액센트로 간주함으로써 이러한 강세 이동을 복합어에도 적용하고 있다(Ladd 1980: 81).

a. A: Has John read Slaughterhouse-Five?

B: No, John doesn't réad books.

b. A: Have you talked to John recently?

B: No, I can't stánd the man.

되지 않는다. 반면에 *gréenhouse*에서는 탈락센트를 받는 *house*는 복합어 전체가 가리키는 새로운 범주 확인에 필요한 부분적 공헌을 할 뿐이다.

또 하나의 예로 흔히 사용되는 *Avenue*와 *Street*가 들어있는 표현들을 보자. *Ladd*에 의하면 머리어는 속성에 의해 전혀 하위범주화 되지 않는다. 따라서 *Madison Avenue*는 어떤 특별한 유형의 *avenue*를 가리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Olin Library*도 특별한 범주의 *library*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합어에서 탈락센트가 되는 *Street*는 무표성이 강하고 특수성이 약하므로 그것이 가리키는 범주에 관한 정보가 *avenue*보다 더 적다. 이와 같은 경우는 *chocolate cáke*, *apple píe*와 *ápple cake*에도 적용된다. 전자에서는 *cake*와 *pie*가 범주이고 *chocolate*, *apple*은 단지 향미에 불과하지만 후자에서 *cake*의 탈락센트는 *cake*이 화맥에서 어떤 다른 것 즉 단지 *apple*에 한정되는 상이한 범주를 갖게 된다. 바꿔 말하면 가공물의 재료는 범주화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Ladd*의 말대로 위와 같은 분석이 갖는 예측의 상대성 또는 함축성이다. 즉 두 어휘 항들만을 근거로 강세 패턴을 예측하거나 또는 그들 사이의 기저 통사적 관계만을 근거로 강세형을 예측할 수는 없다. 바꿔 말하면 다른 가능한 속성 또는 머리어들을 배경으로 개별적인 각각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ápple cake*와 *steel wárehouse*는 B made of A이지만, *cake*의 경우에는 다른 가능성들에 비해 볼 때 *apple*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범주화 해주는데 반해서 *warehouse*의 경우 그것이 *steel*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warehouse*와 *steel* 사이의 다른 가능한 관계들에 비해 볼 때 단지 기술에 불과하다.<sup>6)</sup>

위와 같은 탈락센트와 범주화에 의한 복합어의 구별이 영어 원어민들에게 어휘 구조에 있어서의 분류론적 방법과 유표성의 관계를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 4. 강세의 가변성

복합어는 그것이 발생하는 운율적 환경에 따라 강세형의 변화가 일어난다.<sup>7)</sup> 이러한 사실은 이미 *Pennanen*(1980)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고, 이것은 *Bauer*(1983)에서 또다시 검증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Lees*의 이른바 어휘화(*lexicalization*)를 인정하면서 심리적 요인들과 더불어 의미적 고려를 강조한 *Bauer*는 *Pennanen*의 자료를 근거로 한 실험에서 복합어 강세의 유동성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Pennanen*

6) *Ladd*는 문제 해결의 요인으로서 *greenhouse*와 같은 이른바 일반적인 의미 불투명성(*ordinary semantic opacity*)과 *white elephant*, *French letter* 등의 관용적 표현들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Ladd* 1984: 265, n.6).

7) *Pennanen*이 인용한 예들 중 *telephone di'rectory*, *editorial 'comment*, *occupational 'therapy*, *repeater 'watch* 등의 강세형은 세기(*intensity*) 대신 리듬형에 기인한다(1980:259).

은 Adams의 목록에 있는 구 강세 복합어(phrase-accented compound) 80 개에 대해 강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피실험자 14명 중 7명은 언어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서 영국인 5명, 미국인 2 명이고, 나머지 7명은 박사학위 소지자와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영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sup>8)</sup> 여기에 참고로 Pennanen이 실험한 강세형 분포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	L	E
전문가	18.3%	21.6%	60.1%
비전문가	49.8%	12.9%	37.3%

(F: Forestress, L: Level stress, E: End stress)

Pennanen이 실험의 결과 지적한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복합어 강세형인 첫 번째 요소에 강세를 부여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에 전문가들은 균강세(level stress)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다. 특히 Pennanen의 표현대로 최고 전문가 한사람은 거의 대부분 93% 이상 후강세(end stress)를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개별 항목들의 강세 할당에 일관성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전문가들이 모두 전강세(fores-tress)를 부여하는 항목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은 다소 변동을 보인다. 반대로 비전문가들이 의견일치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강세는 변동이 있다는 점이다.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언어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Pennanen의 견해에 다소 의심을 갖고 그 실험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Bauer(1983)는 영어모국어 화자이면서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거나 영어 교육에 종사한 교사들 10명을 대상으로 Pennanen의 84개 복합어에 대한 강세 할당 실험을 하였다. Bauer와 Pennanen의 수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F	L	E
Pennanen의 전문가	18.3%	60.1%	21.6%
Bauer의 전문가	22.05%	50.05%	27.9%

Bauer의 수치는 Pennanen의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분포상의 차이를 보여 주지만, 균강세가 가장 큰 분포 수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후강세, 전강세의

8) 실험대상자 중에는 Pennanen의 분류대로 여러 면에서 최상위급 전문가(top-level expert) 한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그에 대한 Pennanen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nitial	Level	Final
Top Expert	3.75	2.5	93.75

순서라는 결과는 두 분석에서 일치하고 있다. Bauer의 지적대로 두 분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실험대상자들의 수가 적다는 데에 기인하기도 하고 또는 방언상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복합어 강세에는 규칙이 없다'고 이미 Krusinga(1909)가 말했듯이<sup>9)</sup> 강세는 복합어와 구를 구별시켜주는 보편적인 형태론적 기준이 아니다. 또한 Pennanen의 지적대로 비록 복합어인 blackbird와 구인 black bird를 구별시켜주는 것은 강세이지만 균등 강세를 갖는 black market, iron curtain을 복합어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Pennanen의 실험에서는 iron curtain은 균강세 또는 후강세를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Pennanen의 자료를 근거로 한 Bauer의 실험에서 얻은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강세형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Bauer와 같은 수인 10명의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세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이들 실험 대상자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였고 대부분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두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 모두 현재는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열 명 중 미국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캐나다 출신들이다. 따라서 지역적 방언상의 차이는 일반적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험은 우선 Pennanen의 항목 중 12개를 골라 강세 표시를 전강세(F), 후강세(E) 균강세(L)로 표시하였다. 이것을 Bauer의 숫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F	L	E
managing director	Bauer	0	7	3
	Lee	3	6	1
living wage	B	2	6	2
	L	8	1	1
mind's eye	B	1	8	1
	L	8	2	0
printer's ink	B	2	7	1
	L	9	0	1
master key	B	8	2	0
	L	9	0	1
evening star	B	0	7	3
	L	6	1	1
zebra crossing	B	4	5	1
	L	4	5	1

9) Krusinga는 repeat의 re는 약강세로, repetition의 re는 중강세(medium stress)로 구분하고(1909: 178), gentleman의 man과 Johnson의 son은 약강세이고 ragman, grandson의 man, son은 중강세를 받는다고 한다(1909: 132).



peanut butter	B	1	5	4
	L	4	6	0
iron curtain	B	0	6	4
	L	1	5	4
bone china	B	1	6	3
	L	4	2	4
civil rights	B	0	5	5
	L	7	1	2
chain reaction	B	3	4	3
	L	4	2	4

(B는 Bauer의 실험대상자 수이고, L은 본 연구의 실험대상자 수입)

Bauer의 전문가 집단과 본 연구의 전문가 집단 사이의 강세형은 상당한 분포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Bauer의 균강세가 본 연구에서는 전강세로 나타나는 것들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managing director*, *living wage*, *mind's eye*, *civil rights*, *evening star* 등은 균강세의 경향이 강하지만 이 중 특히 Adams에서 때를 나타내는 *afternoon tea*, *April fool*, *harvest moon* 등과 더불어 후강세로 분류되는 *evening star*는 본 연구에서는 전강세가 압도적인 반면에 Bauer에서는 균강세의 비율이 높다. 그런데 거의 일치하는 것들로는 *chain reaction*, *iron curtain*, *zebra crossing*, *master key* 등이다. 특히 *civil rights*, *evening star* 등은 Bauer에서는 전강세가 한 명도 없는데 반해 본 실험에서는 전강세에 대한 강한 경향을 보여준다.

Bauer는 그의 분석에서 10명의 대상자 중 4명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후강세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한가지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성들이 보다 광범위한 고저 변화를 사용하며 고저 운동이 강세 지각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고저영역(*pitch range*)은 복합어의 첫 번째 요소에 일어나는 고저운동이 무시되어 결국 후강세를 갖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성별 구별 없이 일반적 경향을 얻기 위해 결과 분석을 하였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Bauer의 실험과 Pennanen의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 1회 실시되었다. 그러나 Bauer는 자신이 직접 Pennanen의 예들을 대상으로 세 번에 걸친 예비실험을 한 결과 그것이 자신의 언어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고정 강세형을 갖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sup>10)</sup>

위의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 하나는 복합명사의 고정강세를 규정하기 어

10) Obviously, since I knew what the expected results were, I am not an ideal informant. Nevertheless, the number of Es I recorded on the three occasions suggests that there may be a trend towards more Es in later repetitions of the test (Bauer 1983: 51).

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iron curtain은 Bauer나 본 논문의 분석에서 균강세 또는 후강세가 지배적이지만 Adams에서는 후강세인 반면에 Marchand에서는 균강세로 복합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변동이 다양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 전강세가 압도적이고 Bauer에서 균강세가 많은 printer's ink의 경우에 Adams에서는 후강세인데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에서는 전강세로 표시되어있다. Adams에서 후강세이지만 Bauer의 실험에서는 균강세가 압도적인 printer's ink, mind's eye는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에서 전강세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흥미 있는 것은 Adams에서 소유격 's 로 표시되는 예들로서 bull's eye, dragon's blood, crow's nest, no-man's land, cat's meat 등은 전강세인 반면에 mind's eye를 포함하여 beginner's luck, fool's paradise, tailer's chalk, devil's advocate 등은 후강세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Adam's의 기준에 따라 'B which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A'로 똑같이 구분되는 복합어일지라도 carpenter's level은 후강세인 반면에 cat's meat는 전강세이다.

똑같은 복합어가 세 가지 강세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명사 결합체의 개별적 해석은 항목마다 다르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복합어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의 통사적 구로 간주된다. 또한 모두에게 복합어로 인식된다 하여도 강세 패턴만으로 그러한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Bauer의 의견대로 본 실험에서는 균강세와 후강세가 일반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향이면서 전강세를 별개의 형태로 범주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그러한 가설을 제시하기 어렵다. 셋째로 본 실험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복합어의 강세 할당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원어민들이라 하여도 그들의 언어 능력(competence)이 명시적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함을 말해준다.

Pennanen의 지적대로 강세가 복합어와 구를 구별시켜주는 보편성 있는 유일한 형태론적 기준은 아니다. 비록 강세에 의해 복합어인 blackbird와 black bird가 구별되지만 black market과 iron curtain을 통사적 강세형을 가진 어휘적 구로 간주하여 복합어 범주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Pennanen의 분석에서는 iron curtain은 균강세 또는 말미강세가 많지만 반면에 우리의 분석에서는 균강세가 지배적으로 Bauer의 분석과 큰 차이가 없다.

## 5. 결 론

복합명사에 나타난 강세형은 문장 내에서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또는 억양과 문장의 리듬에 따라 변화를 받는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명사복합어의 강세형을 사전에서처럼 진술이 가능하지만 개개의 복합명사에 대한

강세형은 그것들이 발생하는 운율적 환경의 기능에 따라 변화가 많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이 된다. Bolinger(1955)의 예를 들면 정상강세형 *cottage cheese*가 문장 *Now don't forget when you go to the store - I want some cottage cheese*에서는 *cottage ch ese*로 바뀐다고 한다. Fudge(1984) 역시 화맥에 따라 강세 이동의 예를 들고 있는데 *He's an elevator operator, not an elevator mechanic*에서 대조 강세로 인해 복합어의 후강세 현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견해는 Pennanen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Pennanen에 의하면 *The dress circle is there*에서 *dr ss circle*의 균강세가 *Where is the dress circle?*에서는 말미강세를 갖는다. 또한 강세는 이른바 간접 화맥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즉 *night fighter*는 *d yfighter*와 대조되는 경우에는 전강세가 되지만 *night-bomber*와 대조되는 경우에는 말미강세가 된다.

Bauer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균강세와 말미강세의 변동이 많다는 것은 곧 두 강세형의 구별에 일반성이 없다는 의미이며, 전강세는 하나의 범주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유격 형태는 모두 전강세로 인식이 된다는 사실은 흥미 있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Pennanen이 언급한대로 명사복합어에 대한 개개인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분석자에 따라 복합어가 되기도 하고 통사적 구로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원어민들이 복합어 강세 표시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심리적 요인으로서 화맥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강세 분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능력(competence)에 의존한 명백한 해답을 얻기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auer의 제안대로 문장 안에서 비핵강세(non-nuclear stress) 위치에 있는 복합어들을 자료로 하여 피실험자들의 반응을 녹음하여 그에 대한 소수의 조사자들에 의한 광범위한 독립적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복합명사의 경우 형태론적, 문법적 특성보다는 의미적, 통사적 요인들이 강세 분포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상호 의존성을 갖는지도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dams, Valerie (1973), *An Introduction to Modern English Word-Formation*, 2nd ed. Longman (2nd impression).
- Bauer, L. (1983), *Stress in Compounds: A Rejoinder*. *English Studies : 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64, No. 1, 47-53.
- Bauer, L. (1983), *English Word 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inger, D. (1955), *Intersections of stress and intonation*. *Word* 11, 195-203.
- Celce-Murcia, Marianne, Brinton, Donna M. and Goodwin, Janet M.(1996), *Teaching Pronunciation: A Reference for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msky, N. and Halle, Morris(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Cambridge, Mass.: MIT.
- Cook, Ann (1991), *American Accent Training: A guide to speaking and pronouncing American English for everyone who speaks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Barron's.
- Dauer, Rebecca M. (1993), *Accurate English: A Complete Course in Pronunciation*. Prentice Hall
- Fabb, Nigel (1998) Compounding. In Spencer & Zwicky(eds.), *The Handbook of Morphology*, Blackwell. p.66-83.
- Fudge, Erik (1984), *English Word-Stress*. George Allen & Unwin. London.
- Kenyon, John S. and Knott, Thomas A. (1953), *A Pronouncing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G. & C. Merriam Company, Publishers.
- Krusinga, E. (1925), *A Handbook of Present-Day English I, English Sounds*, 4th ed. Utrecht.
- Ladd, D. Robert (1980), *The Structure of Intonational Meaning: Evidence from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Ladd, D. Robert (1984), English Compound Stress. In Gibbon & Richter(eds.), *Intonation, Accent and Rhythm: Studies in Discourse Phonology*. de Gruyter. 253-266.
- Lees, Robert B. (1960),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s*. The Hague, Mouton
- Liberman, M. and A. Prince (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8: 249-336.
- Marchand, Hans (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2nd edition. München.
- Pennanen, E. V. (1980), On the Function and Behaviour of Stress in English Noun Compounds. *English Studies : 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62, No. 62. 252-263
- Sampson, R. (1980), Stress in English N + N Phrases: A Further Complicating Factor. *English Studies : 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62, No. 2, 264-270.
- Small, Larry H. (1999), *Fundamentals of Phonetics: A Practical Guide for Students*. Allyn and Bacon.
- Zandvoort, R. W. (1975),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7th ed., The English Language Book Society and Longman Group.

접수일자: 2001년 11월 15일

게재결정: 2001년 12월 20일

▶ 이영길(Yeong-Kil Lee)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20 대주아파트 205-302

소속: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화: (062)530-2437

E-mail: yklee@chonnam.ac.kr, yeongkil@naver.com